

外 傷

암블로와즈 빠레 (1517~90년) 그는 의학역사에 큰별이었다. 그는 1545년 大器에 의한 外傷 治療法을 저술하여 공적을 남겼다.

어느날 총상환자는 많고 沸騰한 기름이 없어 그저 상처를 깨끗이 해서 붕대만 감아줌으로 상처가 낡다고 하는 일화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그림은 전쟁터의 부상치료를 보여주는 목판화로 빠레의 발견에 의해서 총상치료에 끓인 기름이 쓰여지지 않게 되고 상처를 燒灼하는 일도 드물어졌다.

世界보건기구(쥬에브 소장)

(이 그림은 한국교정연구회 제공임)



세창치과기공소

752-5970, 778-8687

서울용산구 도동 1가 19-18 (금정빌딩 302)

대표 권혁문